

LA 시민들, '맛깔스런 포교'에 빠지다

와트 타이 寺院 푸드코트 지역 내 '맛집'으로 성황

로스앤젤레스 북쪽 산 페르난도(San Fernando) 계곡은 태국 음식의 요람이다. 그렇다고 계곡에 음식점들이 있는 게 아니다. 빨간 지붕이 인상 깊은 상좌부불교 사원 '와트 타이(Wat Thai)'가 있을 뿐이다. 음식 전문지 'Munchies'가 9월 4일 "와트 타이 사원이 운영하고 있는 '푸드 코트'가 로스앤젤레스에서 최고의 태국 '맛집'이라고 소개하고 "이곳 푸드 코트에서는 한변쯤은 먹어 봐야 할 태국 음식 슝파 타이(spicy papaya salad), 팻타이(stir fried noodle), "궤양공(spicy seafood soup) 등 30여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전했다.



와트 타이(Wat Thai) 사원은 사원 주차장서 푸드코트를 운영하고 있다.

산 페르난도 계곡에 와트 타이 사원이 들어선 건 37년 전이다. 푸드 코트 역시 비슷한 역사를 가지고 있다. 당시에는 법회를 마치고 함께 음식을 나누는 자리였다. 태국 불교 공동체만의 공간이었던 것이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지금 와트 타이 사원의 푸드 코트는 로스앤젤레스에서 가장 유명한 '태국 맛집'이 되었다. 태국계 미국인뿐만 아니라 백인의 미국인도 한변쯤 보고 싶은 곳이 된 것이다. 푸드 코트에서 카오팻(fried rice)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제트 티라(Jet Tila)씨는 "푸드 코트는 태국 불교 공동체의 끈끈한 연결 고리"라며 "서로의 불심을 함께 키우고 정성을 나누는 공간이자 백인의 시민들에게 상좌부불교를 알리는 공간으로 나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카오팻은 볶음밥의 일종으로 어떤 재료를 넣고 볶음밥을 만든다. 카오팻(볶음밥), 카오팻 무(샐러드 볶음밥) 등이 있다. 푸드 코드가 지금에선 성공한 공간이 되었지만 초창기에는 지역 주민들의 격정 그 자체였다. 와트 타이 사원이 푸드 코트 계획을 알리자 이를 반대하며 사원을 향한 방문객을 정도였다. 산 페르난도 계곡의 수려한 자연환경이 푸드 코트로 훼손되지 않을 까 하는 우려가 적잖았던 탓이다. 그러나 우려는 우려일 뿐이었다. 'Munchies'에 따르면 와트 타이 사원은 푸드 코트를 운영하며 일회용품 일체 사용하지 않는다는 엄격한 운영 방침을 세우고 지키기 위해 노력했다. 가게를 연 태국인들 역시 사원의 말을 적극 수용하고 실천

**페르난도 계곡서 30여년 운영
공양간이 '푸드코트'로 발돋움
팻타이·궤양공 등 태국음식 '다제
일회용품, 쓰레기 일절 금지 실천**

했다. 얀운센(spicy glass noodle salad) 가게를 운영하는 피타 친손(Pita Chinson)씨는 "와트 타이라는 성전의 주차장이라는 점도 푸드 코트에 대한 지역 주민의 우려를 없애는 데 큰 몫을 했다"며 "태국 사람에게 사원은 신성한 곳이고 그곳에서 쓰레기를 버린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얀운센은 당면 아체샐러드의 일

종으로 당면과 같은 면과 함께 아체, 샐러리, 씨푸드 등을 넣고 새콤 달콤 매콤하게 버무린 샐러드이다.

'Munchies'에 따르면 푸드 코트에서 최고의 인기 음식은 쿤야(Kunnya) 할머니가 선보이고 있는 슝파 타이이다. 싱싱한 파파야와 양념 소스, 땅콩, 고추 등을 넣어 절구에 살짝 두드려 주듯이 뿡아서 버무려 만든 샐러드이다. 원래는 숯불 돼지고기나 숯불 닭고기 등과 함께 먹는 음식이지만 쿤야 할머니는 오직 샐러드만을 내놓는다. 성전 코앞에서 육류를 내놓을 수 없기 때문이다.

"마치 태국 음식 박물관에 온 것 같다"는 조르단 둔(Jourdan Dunn)씨는 "짜푸르트와 바나나리프를 맛있게 먹었다"며 "좀 더 둘러보며 미국의 맛을 즐긴 후에 사원을 다시 방문해 미국의 종교문화를 꼼꼼히 살펴볼 예정"이라고 말했다.

특별한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다는 조르단 둔 씨는 푸드 코트에 오기 전에 사원을 방문해 푸드 코트에서 사용할 '토론'을 구입했다. 이때 생전 처음 방문한 사원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 푸드 코트에서 사용하는 화폐는 와트 타이 사원이 발행하는 토큰이다. 조르단 둔 씨는 바로 이 토큰을 구입하기 위해 사원을 잠깐 방문한 것이다.

'Munchies'는 "와트 타이 사원의 푸드 코트를 찾는 백인의 시민들을 보면 '음식 포교'라는 말이 가능하다"며 "이색적인 종교와 맛깔스런 문화가 어우러진 푸드 코트는 로스앤젤레스 시민의 이목을 계속 잡아 나갈 것"이라고 평가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불교서 배운 '관용'... 자녀에겐 어떻게?

리처드기어, 英 잡지 인터뷰서 불심과 함께 자녀 교육관 드러내

올해로 만 66세가 된 세계적 스타 리처드 기어(Richard Gere)는 독실한 불자로 알려져 있다. 그런 그가 영국 잡지 'Hello!'를 통해 확고한 신심을 다시 한번 드러냈다.



2011년 6월 27일 인도네시아 보로부두르(Borobudur) 사원서 합장 인사 중인 리처드 기어. 사진출처=AP통신

9월 5일 북아일랜드 언론매체 'Belfast Telegraph'는 리처드 기어의 'Hello!'와 인터뷰 내용을 담아 "그가 젊었을 때 우주와 과학에 대한 호기심으로 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는 현재 같은 고민에 빠져있는 아들 호머(Homer·15)가 자신이 느낀 환희심을 똑같이 느낄 수 있을지 궁금해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리처드 기어는 '불교 외교관'이란 별칭을 얻을 만큼 언론·방송서 수차례 불자임을 밝혀왔다. 인도·티베트 등지를 여행하며 찍은 사진을 모아 2011년 한국서 '순례의 길' 사진전 개최하기도 했으며, 조계사 진관사 등 한국 사찰을 방문해 한국 불교와 인연을 맺은 적도 있다. 특히 2011년 진관사에는 아들 호머와 함께 방문해 눈길을 끌었다.

'Belfast Telegraph'는 "리처드 기어는 최근 캐리 로웰(Carey Lowell)과 이혼했지만 이들은 여전히 호머에게 큰 관심과 사랑을 갖고 있다"며 "리처드 기어는 아들을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벤트'라 표현할 만큼 애착이 남다르다. 그래서 그는 10대의 삶, 10대가 가진 고민 등 바라보는데 큰 흥미를 느끼며 아들의 삶을 공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런 노력을 불교와 더불어 그의 스트레스를 해소시키는 역할을 한다. 호머에 삶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는 보통의 아버지가 겪는 사소한 걱정, 혼란 등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그는 "내가 어디로부터 왔고 지금 어디에 있는지 깊이 사색하다 보면 이내, 관용, 자비를 배우게 된다.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건 즐거움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라며 "보통 사람들은 바쁜 생활 속에서 '즐거움'을 놓치고 살지만, 그것은 어디에나 있고 그 중심에는 사랑이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Belfast Telegraph' 기사에 따르면 리처드 기어는 불교를 통해 '화를 지배하는 방법'을 배웠다. 그는 인터뷰서 "화가 나려고 할 때면 내 화로 인해 상처받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떠올린다"며 "참을 수 있는 일에 화를 낸다면 나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것 같다"고 드러냈다.

이에 대해 그는 "불교는 내가 내면을 더 깊게 바라볼 수 있도록 가르쳤다. 이를 통해 나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하는 것에서 점점 벗어났으며, 내 삶을 즐기며 타인과 고통을 나눌 수 있는 여유가 생겼다"고 말했다. **박아름 기자**

금발의 톱모델서 비구니 수행자로 변신하다



애니 리첸(Ani Richen·67) 스님. 1994년 출가의 길을 택한 잭키 글래스(Jackie Glass)는 현재 에든버러에서 Kagyu Samye Dzong 센터를 운영하며 대중의 마음에 불심을 심어주고 있다.

英 언론, 애니 리첸 스님 '주목'... "달라이라마 법회 참석 후 출가"

영국의 축구스타 조지 베스트(George Best, 1946~2005)의 공식 커플로 세간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던 한 여성이 이제는 비구니 스님으로 다시 세간의 주목을 받고 있다.

'Daily Mail'은 9월 9일 "과거 톱모델이자 전설적인 축구선수 조지 베스트의 공식 커플이었던 잭키 글래스(Jackie Glass)가 이제는 애니 리첸(Ani Richen·67)이라는 법명으로 에든버러에서 명상 센터를 운영하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수행자로 살고 있다"고 전했다.

'Daily Mail'에 따르면 글래스와 베스트의 러브스토리는 영국의 최대 화제였다. 두 사람의 일상 모습까지도 매일 언론 지면

을 장식했을 정도였다. 파티글래스의 금발은 영국 여성들의 선망의 대상이었고 옷과 가방은 항상 쇼핑 우선순위에 있었다.

하지만 대중의 관심은 글래스와 베스트의 결별 이후 급격히 사그라졌다. 당시 언론은 '베스트의 잘못으로 파경을 맞았다'며 안타까움을 전했지만 글래스를 조명하지는 않았다. 글래스는 결별 이후 베스트를 만나지도 않았고 두문불출했다. 딸 로지(Rosie)만이 남아 자신을 지켜줬을 뿐이었다.

"티베트 불교에 귀하게 된 것은 딸 때문"이라는 리첸 스님은 "나무 치료 전문가(tree surgeon)로 발리에 살고 있는 딸이 독실한 불자"라며 "딸의 종교를 알고 싶었

던 나는 당시 영국을 방문해 순회법회를 열고 있던 달라이 라마를 찾아간 게 출가의 단초가 되었다"고 설명했다.

'Daily Mail'에 따르면 이후 글래스는 딸보다 더욱 독실한 불자의 삶을 살았고 1994년 티베트 불교사원을 찾아 수계 과정을 밟고 '애니 리첸'이라는 법명을 받았다. 그리고 에든버러의 Kagyu Samye Dzong 센터에서 대중에서 불심을 심어주고 있다.

"나는 여전히 농담을 좋아한다"는 리첸 스님은 "대중을 만날 때 수행자로서 진지한 모습도 보이지만 차담을 나눌 때는 과거의 습성이 배어 나온다"며 "자신의 삶을 단순화하는 정도만큼 내면 역시 그만큼의 평화를 가꿀 수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태국 '행운의 인형' 불티나게 팔려

'스님 축복 받았다' 소문되며 30배 넘는 가격에 거래

태국 불자와 관광객 사이에서 '행운의 인형'이 인기다.

'Wall Street Journal'은 9월 9일 "태국의 사찰 인근 가게에서 행운의 인형이 높은 가격에도 불구하고 태국 불자나 관광객들에게 인기다"며 "이 인형은 1,500달러에 불과하지만 스님의 축복을 받은 인형이라는 점이 다르다"고 전했다.

태국 사찰 인근 가게에서는 불교 관련 디자인 상품을 부적으로 판매해 왔다. 그러나 사람을 닮은 인형이 행운의 부적으로 판매되는 건 최근부터다. 행운의 인형 구매자들은 더 큰 행운을 빌기 위해 '금액'을 따로 구입해 장식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효험 일화도 퍼지고 있다. 이중에서 풍아



태국 불자와 관광객 사이에서 '행운의 인형'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출처=WSJ

위 페케이위(Punyawii Petkaew)의 일화가 널리 알려졌다. 인형의 금발에 끌려 행운의 인형을 산 그는 구매 당시 '약간의 돈'을 기원했는데 복권에 당첨됐다. 복권 당첨금은 1만바트(한화 약 32만원)이었다.

"행운의 인형을 구입하며 일회성금을 바라지 않았다"는 풍아위 페케이위 씨는 "단지 퇴직 후 가족 여행을 떠나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다"며 "당첨금은 부처님께서 주신 여행 경비라고 생각하고 가족 여행을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오종욱 편집위원**

초판 22세의 스티디 셀러!!

삶은
꿈가
아니다

10,000원
A5 / 287쪽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삶은 고가 아니다

길을 묻는 이들에게 전하는 대행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롭게 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보다도 바랄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애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생활 속의 불법을 설하는 **대행스님 법어집** - (제)한마음선원 출판부 www.hyunbulshop.com

- ▶ 허공을 걷는 길 대행스님 법문 전집(법회별 출간)
- ▶ 한마음요전 대행스님의 구도기·법어·게송·선화의 집대성
- ▶ 수행요전(법어집) 기본적인 예불의식과 관법의 기초를 담은 불자입문서
- ▶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금강경(독송용)
- ▶ 만 가지 꽃이 피고 만 가지 열매 익어 A Thousand Hands of Compassion (Korean/English) 대행스님의 뜻으로 된 천수경(한글/영어)

* 구입문의: 현대불교 현불샵 2004-8215~6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